

장성군, 민선 8기 공약 이행 군민이 직접 점검 한다

공약이행점검 군민평가단 위촉 안전 심의 및 개선안 도출 주력 실무부서 검토 거쳐 반영 결정 이행·점검 결과 정기적 공개

장성군민들이 민선 8기 공약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군민들로 이뤄진 공약 이행점검 평가단을 구축해 공약 안전 심의와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민선 8기 공약이행점검 군민평가단' 위촉식을 가졌다.

'공약이행점검 군민평가단'은 7개 분야 55건의 민선8기 장성군 공약 이행 현황을 공정하게 점검·평가해 신뢰와 소통 행정 구현에 일조한다.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난 13일 군청에서 민선 8기 공약 이행점검 평가단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18세 이상 장성군민 가운데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을 통해 34명을 선발했으며, 연령대도 2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위촉식에 이어서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을 주제로 한 교육과 총 17건의 심의 안전을 선정하는 1차 회의가 열렸다.

오는 20일에는 부서별 공약 담당자로부터 정책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분임별 안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3일 3차 회의에서는 분임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최종 도출된 의견은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군민평가단 최종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장성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회의를 마친 군민평가단은 "군민의 대표로 공약을 점검하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군민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공약 이행 및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보성군,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실시 맞춤 건강정책 수립

보성군은 7월 31일까지 '2024년 지역 사회 건강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사회 건강 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시·군·구·보건소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지역의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산출해 지역 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에서 선정한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일대일 면접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가구 조사, 질병이환 및 건강행태, 의료 이용 실태, 사고 및 중독,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에 질병관리청에서 주요 통계 결과로 공표되며, 2025년 2월 지역사회 건강통계집으로 발간 예정이다.

양기람 기자

영광 찰보리 어울마당 성황 10~11일, 1만2000여명 방문

영광군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시내 돌탑공원 일원에서 개최한 제10회 영광찰보리 어울마당에 관람객 1만2000여 명이 방문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찰보리 어울마당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박홍영)가 주관하고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박종필)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보리밭 주변에 250여 점의 허수아비 작품 전시,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조성 등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기획과 연출로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행사로 불거리, 체험거리, 먹거리가 풍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개최한 제1회 영광찰보리 그림그리기 대회, 장작 시 대회 및 허수아비 만들기 대회 시상식 참석을 위하여 전국에서 많은 가족 단위 관람객이 방문하는 효과를 거둬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영광=김도윤 기자



지난 11일 영광 시내 돌탑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찰보리 어울마당'을 찾은 관람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광군 제공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구례군, 5월31일까지

구례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했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자체를 방문하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인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도움 창구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올해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ARS전화(국세 1544-9944, 지방세 1661-6669)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며 "도움창구 운영 기간 민원인이 집중되는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아이디어 공모

6월7일까지 이메일 등 접수

장성군은 6월7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사업이다.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우

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모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30만원, 장려 5명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상금으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기부자가 공감하는 참신하고 실용적인 기금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24~26일 열리는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와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6월2일까지 장성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한 뒤 답례품을 주문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군은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장성살과 마스크팩이 담긴 홍보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성=유봉현 기자

민주평통신안군협의회, 평화역사 현장 탐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협의회장 박군보)는 16일 신안군 여성단체회원과 함께하는 평화공감 현장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민주평통 신안군 임원들과 신안군 7개 여성단체회원 80여 명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기념관을 탐방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앞장

섰던 학생 독립운동정신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역사를 기렸다.

탐방 외에도 담양 담빛 농업관 강당에서 탈북민 통일안보강사를 초청해 목숨을 건 탈북과정, 남한사회 정착과정,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군보 협의회장은 "지역 특수성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여성 지도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지역 여성 지도자부터 평화통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실천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광양시, 안전보안관 추가 모집 재난·안전단체 참여 경력자 대상

광양시는 19일까지 지역 내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소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할 안전보안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내 불법 주·정차 외에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고 안전 문화운동(캠페인 등)에도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멘토-멘티 매칭 운영으로 초·중·고생들이 참여하는 제1기 광양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평소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안전에 관심이 많은 활동적이고 의욕적인 광양시민이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재난·안전단체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이다.

지원 희망자는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eon2104@korea.kr)로 제출하거나 광양시청 안전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 운영 20~24일 법률·주거지원 상담 제공

광양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세피해 입자인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운영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중마동사무소 2층 소회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약(유선)을 통한택방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양=안영준 기자